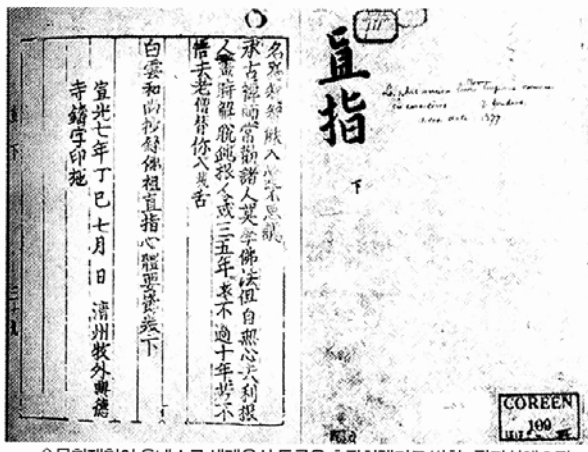
문화재청 올 예산 2795억원

관광자원 개발 치중 문화재 관리 '곁가지'

불교문화재 조사비 '없던 일로'



◇문화재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직지심체요절>

문화예산 1조원 시대를 맞은 올 문화재청 주요 사업계획이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보다 그 활용에 치우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문화예산은 1999년 6647억 원에서 2000년 9639억 원으로 크게 는 데 이어 올해는 1조458억 원으로, 문화 예산 1조원 시대를 맞았다. 이에 따라 문광부 외청인 문화재청 예산도 1999년 1620억 원에서 2000년 2558억 원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2795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이는 지난 1994년 전체 문화예산(2361억 원)을 넘어서는 액수다.

14일 문화관광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서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의 보존 · 전승과 현대적 활용'을 기본 방향으로 잡고 △문화유산의 항구적 원형 보존 및 관광자원화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 △문화유산의 우수성 선양 및 국제협력 강화를 주요 업무계획으로 설정했다.

이 가운데 핵심은 문화재의 과학적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문화재청은 이를 위해 2002년까지 '경주출토 유물보관동'과 2003년까지 '중앙 매장문화재보관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인 및 영세사업자에 한해 발굴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를 확대키로 했다. 이는 문화재 관리의 국가 책임 강화로 매장문화재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재청은 이밖에 7개 문화권 및 유교, 남해안, 거석문화유적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직지심체요절>과 <승정원 일기>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문화유산의 보존' 보다는 '현대적 활용'에 치우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문화재청은 올해 매장 문화재보호 예산으로 지난 해(16억 원)보다 2배 늘어난 32억 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당초 계획했던 67억 원보다는 절반 이상 삭감된 금액이다. 또 경주출토유물보관동(7억3천만 원)과 중앙 매장문화재 보관시설(10억 원) 관련 예산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데다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는, 기초적인 조사 사업인 분포지도 작성에 9억 원이 책정됐다. 이는 지난 해 12월 국회 문광부 예산안 심의에서도 소속 의원들이 "문화재청 예산 중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예산이 관광자원 개발에 배정된 반면 문화재 보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억 대의 불교문화재 일제 조사비 등은 전액 삭감돼 유감스럽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각종 개발에 따른 매장문화재 관련업무는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담당인력, 특히 전문 학예직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권형진 기자(jinny@buddhapia.com)

학술기행 中 산동반도의 한국불교

바다 보이는 붉은 돌산 위 절

법화원 어제와 오늘

이영자 <동국대 교수>

위해 부두에서 출발한 현대식 나룻배가 쌀쌀한 겨울 바다를 가르며 우리 일행을 유공도(劉公島)에 내려놓은 것은 12월 26일 오전이다. 갑오전쟁기념관 입구에 걸린, 이홍장이 썼다는 '해군공소(海軍公所)'라는 현판이 청말 북양함대사령부가 설치되어 있었던 역사를 알게 해 준다. 위해시(市)나 연대시는 근세에 부상한 항구도시지만 당송시대에도 이 연안에는 신라의 배들이 분주히 드나들며 구법스님들을 실어 날랐을 것이다.

강경의식과 송경의례

오후에는 적산법화원 관람이다. 법화원은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산동반도 영성시(榮成市, 당대에는 文登縣 소속) 석도진(石島鎭) 적산의 남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석도는 원래 섬이었으나 지금은 육지와 연결돼 있고, 적산은 문자 그대로 붉은 돌이 많아 붙은 이름이다. 절에 서면 바다가 바로 보인다. 우리가 들어선 절 입구에는 최근에 돌로 만든 산문이 큼직하게 세워져 있는데 글씨는 근년에 유명을 달리한 중국불교협회 조박초 회장이 쓴 것이다. 절은 중앙에 대웅보전이 앉고, 그 좌우로 관음전과 지장전이 마주하고 있으며, 지장전 내부에는 월전 화백이 그린 장보고 대사의 영정이 봉안되어 있다. 절에는 비구니스님 7, 8명이 주석하고 있는데 주지 노스님은 구화산 인덕(仁德) 방장 스님의 상좌로서 10년 전에 출가하였으며, 1년 전에 이 절로 옮겨왔다고 한다. 인덕스님은 비구스님인데 비구니스님과의 사자상승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아마도 개혁 개방에 숨가쁜 중국 불교가 아직은 그러한 격식을 갖출 겨를이 없어서인가 보다.

◇장보고 해상단의 안식처였던 적산법화원. 지금은 산동성 주요 관광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적산법화원은 당시 동아시아 해상세력을 주름잡던 장보고 대사가 세운 절이다. 엔닌(圓仁, 794~864)의 <입당구법순례행기>는 적산법화원의 경영과 법회에 관한 내용까지도 자세히 전해주고 있다. 장보고 대사는 이 지역에 많은 논밭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 절의 일 년간 양식으로 500석의 쌀을 충당하였다고 한다. 당시 이 절에는 30~40명의 스님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며, 여기서 행하였다는 강경의식과 종교 의례로서의 송경의례에 관한 경험담이 매우 흥미롭다. 당시 성림(聖林) 스님이 좌주이며, 돈증(頓證)과 상적(常寂) 스님이 보조강사로서 법회를 주재하였는데 대중은 모두 신라인으로서 승려를 비롯해 속인 노인 젊은이 귀족 평민이 두루 참석하는 무차법회였다고 한다. 법회를 마치기 전날에는 200명이 회향하고, 마치는 날에는 250명이 회향하였으며, 그들 모두 보살계를 받았다. 강경(講經)할 대목이 있으면 질문하고, 강사는 이에 대해 대답해야 한다. 송경(誦經) 의례도 신라풍속을 따라 신라말로 하되 낮에는 법화경과 금강경을 강의하고, 밤에는 예불과 참회하는 종교의례를 행한다. 의례 때에는 한목소리로 삼보에 귀의하고 찬불하며, 도사가 인도하는 데 따라 '나무약사유리광불', '나무대자대비관세음보살'을 큰 소리로 복창한다는 등등이다.

옛 신라인의 이국 삶

이와 같이 적산법화원을 중심으로 하여 이 여행기에서 전해주는 재당(在唐) 신라인들의 신앙생활에 관한 이야기는 흥미가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신라인들의 송경의례는 우리들의 관심을 끌기에 부족함이 없다. 우리나라에는 법화경 영험담이나 고승들의 법화경 연구서는 더러 남아 있으나 실제로 무슨 경을 가지고 어떠한 형식으로 신행 생활을 하였는지는 전혀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기록은 신라불교사 이해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다.

삼불보전에서 내려다보는 적산포 앞 바다는 한 폭의 수채화처럼 아름답다. 옛적 여기 살던 신라인들도 과수를 심고 밭을 갈며 등쪽 바다의 파도소리를 벗삼아 두고 온 산하를 그리면서 열심히 살아갔으리라.

산불로 부서졌던 선각왕사비 '제모습'

지난 97년 발생한 산불로 부서진 경기도 양주군 회암사터 선각왕사비(보물 제387호)가 1년 6개월여의 보존처리 끝에 완전 복원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화재 당시 높은 열을 견디지 못하고 130여 개 조각으로 부서진 비석의 몸통 부분 파편들을 모아 원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복원 작업을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이명희 보존과학실장은 "화재로 석질 자체의 변형이 일어나 훼손된 접합면이 맞지 않고 각각의 부재들의 접합강도가 약해 부분적으로 티타늄봉을 사용해 접합강도를 높였다"며 "22일 문화재위원회 회의를 거쳐 양주군에 인계해 경기도박물관에 보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분 복원이 아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석조문화재의 전면 보존처리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보고서는 3월말께 나올 예정이다.

권형진 기자

화엄석경 '컴퓨터 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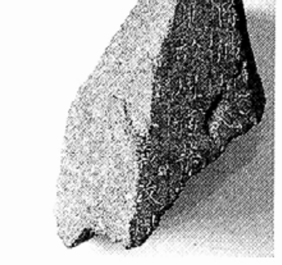
화엄사, 2007년까지 1400여 파편 붙이기 "제작연대 · 서체 등 규명"

임진왜란으로 산산조각 난 화엄석경(보물 제1040호 · 화엄사 소장)이 최첨단 컴퓨터 그래픽으로 되살아난다.

지난해 5월 '화엄석경 보전 및 복원사업추진위원회'를 결성한 화엄사(주지 종걸)는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석경의 조각을 맞춰 그 내용을 판독하고 판수와 서체 등을 밝혀내기 위한 작업을 2007년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엄사는 이미 지난해 8월 고려대장경연구소에 석경 복원 작업을 의뢰한 상태다.

임진왜란 당시 화엄사 장륙전이 소실될 때 함께 파손된 석경은 현재 1만 4천여 점의 파편으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고려대장경연구소는 우선 석경 조각에 대한 스캐닝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작업이 끝나면 컴퓨터 상에서 이웃한 조각을 찾아 붙이는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화엄사는 컴퓨터 상의 복원을 끝내는 대로 석경의 실제 크기와 판수 등을 추산하고, 그래픽 상으로 원형에 근접한 석경을 선별해 복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석경의 내용이 60권 짜리인지 아니면 40권 짜리 화엄경인지를 규명하고, 서체의 종류와 정확한 연대도 밝힐 계획이다.


◇화엄석경 파편.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군사보호구역내 불교유적 81건"

문화재 연구소 지표조사

강원도와 경기도 군사보호구역 내에는 모두 81건의 불교유적 · 유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지난해 강원도편에 이어 최근 <군사보호구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경기도편>을 발간함으로써 밝혀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사보호구역 내 문화유적 중 불교유적은 강원도 43건, 경기 · 인천 39건 등 모두 81건이다. 이를 종류별로 보면 절터 49곳, 사찰 15곳, 석불 9기, 석탑 4기, 석조 석등 부도 목불이 각각 1기다.

조사를 맡았던 유적조사실 김선태 실장은 "휴전선 부근 군사보호구역내 유적 전체를 한 권으로 묶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 지역 문화유적에 대한 학술 및 보존의 기본 자료를 확보했다는 데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문화재연구소는 91년부터 10년 동안 휴전선을 끼고 있는 강원도와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9개 시 · 군을 대상으로 문화유적에 대한 현황을 조사했다.

권형진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38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학인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 작 법 반 (6개월)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 (나비춤) 등
·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1년 3월 12일까지
◆ 개강일시 : 2001년 3월 13일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전화 · 서신 문의하면 안내서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참 선 교 육

■ 참선교육 53기 안내 ■

한생각 일어났을 때 단속하지 못함을 두려워 할지언정 깨닫지 못함을 두려워 하지 말라는 조사들의 정통참선법인 화두선을 종지로 하고 교육을 시키는 곳은 본회 밖에는 없습니다. 교육을 통하여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뀔 수 있는 53기 참선교육(하안거전)에 동참바랍니다.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께 홍보바랍니다.

■ 기 간 : 2001년 3월 6일 ~ 2001년 4월 3일 (5회)
■ 일 시 : 매주 화 · 수요일 오전 10~12시, 오후 7시~9시
■ 장 소 : 본회 선방 (조계사 후문 원당빌딩 2층)

일 자	교 육 일 자
3월 6일 (화)	참선의 자세
3월 13일 (화)	참선의 종류
3월 20일 (화)	선종발달사
3월 27일 (화)	화두의 중요성
4월 3일 (화)	화두 참구법

■ 동 참 비 : 3만원 (교재 교재비)
■ 교재제공 : 참선교육 책 1권, 참선교육 테이프세트 (10개) 대형 선종발달사 도표
■ 접수문의 : ☎ 732-5960

※ 강남 선방 (봉은사 일주문 옆 버스정류장 5층 건물 (3층)
참선교육 3월 8일 ~ 4월 6일까지 5회
오전 10시 30분 오후 7시 30분 (매주 목요일은 강남선방)

대한불교 조계종 修禪會

"불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 · 가 · 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뵙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밑 불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한재를 탕재로 하여(한박스 60포)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이며 풍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여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과 당뇨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래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정배리 463번지
중미산 불심정사 전화번호 : (031) 771-1571
(016) 222-7701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불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보시금은 불심정사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청강 대 진 합장